BIEF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2021 FOIRES DU MONDE*

SEOUL

* 2021 서울국제도서전 - 서울특별시

저작권 판매 현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관련 최신 정보는 해당 출판사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Design: www.athom.fr 옮긴이 이은정 : Julia Eun Jeong Lee - ejlee.julia@gmail.com

Bureau International de l'Édition Française
115, bd Saint-Germain - 75006 Paris, France
t. +33 (0)1 44 41 13 13 - f. +33 (0)1 46 34 63 83
info@bief.org - www.bief.org

Le Seuil

- 카페 비브르
- 하늘의 눈으로
- 반경 수 킬로미터
- 피로의 역사
- 파리지엔느
- 이유 있는 몸
- 합성 심장
- 노동 선언문
- 마르셀 프루스트
- 어느 여행자의 죽음
- 서양 무용의 새로운 역사
- 아무도 총을 꺼내지 않는다
- 피에로 헬리처
- 식물이란 무엇인가
- 토성
- Somb
- 번역과 폭력
- 중요하지 않은 범죄
- 흑백의 세계
- 유적의 보편적 역사

Le Seuil

www.seuil.com 해외 저작권 Maria Vlachou : maria.vlachou@seuil.com | 수출 Pierre Hild : pierre.hild@seuil.Com

Le Seuil

문학

샹탈 토마

현대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초월적인 감각에 대하여.

> CAFÉ VIVRE : CHRONIQUES EN PASSANT

카페 비브르
스치듯 여행하다

샹탈 토마는 이미 방문했었거나 처음으로 발견한 장소를 돌아다니며, 여행의 핵심인 낯섬과 친숙함의 조화를 탐구한다. 또한 교토의 봉봉 카페, 뉴욕의 올린 카페와 너발 카페, 교토의 카페 비브르 등 카페라는 장소의 마법같은 매력을 글을 통해 재현하고, 인간이 풍경이나 예술품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다는 감각, 자기 자신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독특한 느낌을 이야기한다.

FIND OUT MORE
> 17500부 판매됨 (프랑스)

9782021451740 | 2020 | 208 PAGEs
14X20,5 CM | 17.00 €

문학

라시드 방진

흔들리는 세상과 매춘부의 삶에 대한 강렬한 소설.

> DANS LES YEUX DU CI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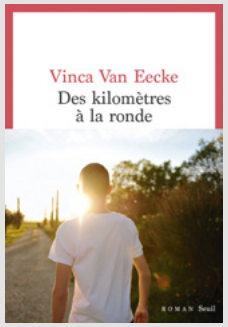
하늘의 눈으로

누르는 엄마의 뒤를 이어 매춘부가 되었다. 일을 할 때 그녀는, 창밖으로 지나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티브이를 본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그리고 비밀스레 자신의 굴욕감을 견뎌냈다. 그러나 창밖의 사람들은 이제 침묵하기를 원치 않고, 거리에는 아랍의 봄이 울부짖고 있었다. 누르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랍의 봄이라는 분노의 움직임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남성들의 진실된 감정에 접근하기 쉬운 그녀의 직업 덕분에, 무시 받고 고립되었던 여성 누르는 전복되고 있는 외부 세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는데...

9782021433272 | 2020 | 176쪽
14X20,5 CM | 17.00 €

쇠이 출판사

문학



빈카 반 엑크

청춘' 그 자체처럼
감각적인 저자의 데뷔작.

DES KILOMÈTRES À LA RONDE

반경 수 킬로미터

한 10대 소녀가 방학 동안 부모의 별장이 있는 마을에서 그곳의 청소년 무리들과 우정을 키워가는 이야기다. 마을의 청소년들과 친해진 소녀는 그들 중 한 명과 로맨틱한 관계를 갖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건 후 몇 년이 지나고, 소녀는 지루함과 웃음과 바보 같은 일들로 가득했던,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 시절의 기억을 이야기한다. '청춘' 그 자체처럼 감각적인 저자의 데뷔작.

9782021461237 | 2020 | 240쪽
14X20,5 CM | 18.00 €

인문사회·에세이

조르주 비가렐로

우리의 현재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매혹적이고
역사적인 피로 여행.

HISTOIRE DE LA FATIGUE :
DU MOYEN ÂGE À NOS JOURS

피로의 역사
중세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피로에 따른 일반적인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신체적인 불편감, 심리적 고통, 의지 상실 등. 피로는 오래전부터 인간 삶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인식은 변하고 있다. 과로, 스트레스, 번아웃, 정신적 부하 등 구체적인 용어가 나타났고, 새로운 증상과 그에 따른 새로운 설명들이 뒤따랐다. 피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형태 역시 시대와 함께 변해왔다. 한때는 성을 수호하는 기사의 영예로운 인내심이기도 했고, 금융계 종사자의 피곤한 얼굴이기도 했고, 육체노동자의 고갈된 체력이기도 했다. 한편, 우리는 디지털과 서비스업의 시대가 되면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을 놓치고 있다. 무한한 자율성에의 꿈과 그에 수반되는 좌절이 무한한 피로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9782021291919 | 2020 | 480쪽
15,3X24 CM | 25.00 €

쇠이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에마뉘엘 르타이요

어제와 오늘 사이, 대담함과 수동성 사이에서 형성된 파리지엔느의 매력적인 이미지.

LA PARISIENNE : HISTOIRE D'UN MYTHE. DU SIÈCLE DES LUMIÈRES À NOS JOURS

파리지엔느

파리지엔느, 그 신화의 역사

파리지엔느'의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에 맞서 살아남았다. 귀족과 인민 여성, 파리와 지방, 여성 해방과 남성 지배 사이의 대립 속에 형성된 '파리지엔느'의 이미지는 새롭게 태어나며 꾸준히 변화해왔고, 시대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파리지엔느라는 하나의 고정 관념을 진지하게 다룬 최초의 책일 이 책은, 파리지엔느는 개념이 형성되던 문화적 기원으로 돌아가 개념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개념의 용도와 기능을 해석한 책이다.

9782021365375 | 2020 | 432쪽
15,3X24 CM | 23.00 €

인문사회·에세이

장 스타로뱅스키

우리 몸에는 역사가 있는가?

LE CORPS ET SES RAI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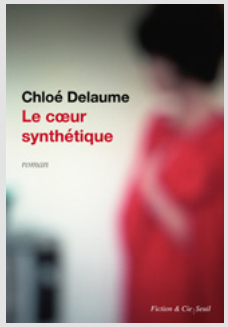
이유 있는 몸

몰리에르는 어째서 의사를 놀렸던 걸까? 정액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스트레스는 질병일까? 의학사를 조사하던 저자 장 스타로뱅스키는 이런 놀라운 질문들에 직면했다. 우리의 신체에는 우리의 이성이 알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신체에 대한 지식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놀라운 책.

9782021238402 | 2020 | 544쪽
14X20,5 CM | 26.00 €

Le Seuil

문학



클로에 들롬

유쾌한 아들레드의 삶 속으로 들어가 순수한 독서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LE CŒUR SYNTHÉTIQUE

합성 심장

40대 여성 아들레드는 최근에 이혼을 한 뒤 그녀를 괴롭히는 모순된 상황에 처한다. 독립적으로 살고도 싶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고 싶지는 않았다. 아들레드는 인생 경험이 꽤 많지만 여전히 순진하고, 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애 같은 여자다. 그녀는 언제나 조건부 시제로 살아가며, 그녀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고 마음껏 자신만의 사운드트랙을 선택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낯선 남자가 아들레드의 끝없이 수정되는 시나리오 속에서 그녀의 인생의 남자가 되는데...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76000부 판매

9782021425451 | 2020 | 208 PAGEs
14X20,5 CM | 18.00 €

인문사회·에세이

이자벨 페르라
쥘리 바틸라나
도미니크 메다

여성 학자들이 작성하고 전 세계 6000명의 학자들이 서명한 필수 선언문.

LE MANIFESTE TRAVAIL : DÉMOCRATISER, DÉMARCHANDISER, DÉPOLLU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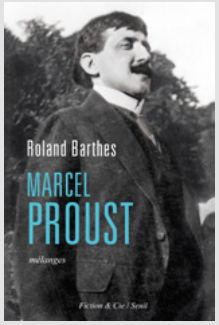
노동 선언문
민주화, 반 상품화, 환경 정화

노동 현장에서 인간은 '자원'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도시 통제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삶을 살아야 했던 모든 이들은 이 명제에 대한 살아 있는 증거였다. 노동 자체가 상품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직원들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시장법에 따라 아무런 규제 없이 노동자를 부리는 특정 분야 노동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지구를 구해야 한다.

9782021470499 | 2020 | 216쪽
13X18,5 CM | 13.00 €

Le Seuil

문학



롤랑 바르트

불발되었던 <바르트가 바라본 프루스트>가 반짝이고 격동하는 책 한 권으로 돌아왔다.

MARCEL PROUST : MÉLANGES

마르셀 프루스트

혼합

1980년 2월. 바르트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속의 등장인물을 모델로 한 실존 인물들의 사진을 프로젝터로 투사하는 작업을 기획했다. 작업 준비 막바지에 이르러, 프로젝터의 설치를 확인하기 위해 콜레주 드 프랑스로 가야 했던 바르트.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르트는 프로젝터 확인 작업을 할 수 없었다. 가던 길에 트럭에 치이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고, 바르트는 당시 불발되었던 <바르트가 바라본 프루스트>의 작업 노트와 파일 등을 모아서 그때의 불의를 회복하고 불가피하게 생겼던 구멍을 매우고자 이 책을 썼다. 바르트의 시선으로 새롭게 만나는 프루스트.

9782021449426 | 2020 | 400 PAGEs
14,5X22 CM | 24.00 €

인문사회·에세이

디디에 파생

한 여행자가 프랑스 헌병특공대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왜일까?

MORT D'UN VOYAGEUR : UNE CONTRE-ENQUÊTE

어느 여행자의 죽음

재조사

여행 동호회에 속했던 한 남자가 프랑스 헌병특공대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사건을 둘러싼 가족의 이야기와 헌병대의 설명은 일치하지 않았고, 사건은 법원에 의해 기각된다. 이 사건에 매료된 디디에 파생은 재조사를 이끌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 여행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의 여러 버전을 재현하는 실험적 형태의 내러티브를 발명한다. 이를 통해 디디에 파생은 고통받는 존재의 삶의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행자를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9782021450774 | 2020 | 176 PAGEs
14X20,5 CM | 17.00 €

쇠이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로라 카펠
공동저작물

아마추어, 전문가 및 무용 교사에게 필수적인, 독보적인 서양 무용 역사서!

NOUVELLE HISTOIRE DE LA DANSE EN OCCIDENT : DE LA PRÉHISTOIRE À NOS JOURS

서양 무용의 새로운 역사

선사 시대에서 현재까지

저자 로라 카펠은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에서 서양 무용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 선사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서양 무용의 새로운 파노라마를 만들어냈다. 고전 무용의 구성에서 오늘날의 힙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용의 기법과 유행을 보여주고, 아폴로니안적이면서 디오니시안적인, 또한 정치적이고 미학적이며 수많은 신체의 기술이 필요한 예술 '무용'의 다양한 면모를 담아냈다.

9782021399899 | 2020 | 368쪽
17X24 CM | 31.00 €

문학

상드라 뤽베르

자본주의의 언어와 논리에 대한 분노로 뜨겁게 쓰여진 텍스트.

PERSONNE NE SORT LES FUSILS

아무도 총을 꺼내지 않는다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범법을 내면화했다. 범죄에 대한 유혹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 자신을 비춘다.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프랑스 텔레콤 재판이 열렸다. 7명의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는 자살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잘 실행되었다고 생각했고, 단 하나만을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다. "결국 자살한 자들 때문에 파티를 망쳤다"라고.

9782021456554 | 2020 | 156 PAGEs
13X18,5 CM | 15.00 €

Le Seuil

문학

파트릭 바르

피에로 헬리처는 현실을 발명하느라 평생을 보냈다. 모든 것이 사실이고, 모든 것이 거짓이기도 하다.

PIERO HELICZER : L'ARME DU RÊVE

피에로 헬리처
꿈의 무기

20세기 후반 미국의 시인이자 인쇄업자, 출판편집자, 언어에 헌신한 금욕주의자, 대문자 금지 수호자, 윌리엄 버로스와 그레고리 코르소와 앨런 긴즈버그와 같은 길을 가던 동반자, 멀티미디어 쇼의 발명자이자 음악가이자 벨벳언더그라운드의 창립멤버였던 앤디 워홀에게 영감을 준 장본인이었던 인물 '피에로 헬리처'를 이야기한다.

9782021087758 | 2020 | 432 PAGEs
14,5X22 CM | 21.00 €

인문사회·에세이

플로랑스 뷔르가

우리는 식물도 동물도 아니지만 그들의 신비에 접근할 수는 있다.

QU'EST-CE QU'UNE PLANTE ? : ESSAI SUR LA VIE VÉGÉTALE

식물이란 무엇인가
식물의 삶에 대한 에세이

식물은 고통받지 않는다. 고통이란 신체로 겪는 경험인데, 나무에게 죽는다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일 뿐이다. 상대적인 의미의 죽음이란 사실 완전한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모든 가능성의 절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끝이어야 한다. 그래서 동물이나 인간은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일 속에서 채취한 마른 씨앗은 땅에 심기면 다시 살아난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밀알은 한 번 죽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 죽는 이러한 식물의 삶은, 오히려 비극의 정반대 위치에 놓인다.

9782021414615 | 2020 | 208 PAGEs
14X20,5 CM | 20.00 €

쇠이 출판사

문학

사라 시슈

무한한 애도의 길을 용기있게 여행하는 한 위대한 작가를 비추는 행성.

SATURNE

토성

1977년. 한 청년이 비극적으로 사망한다. 그의 이름은 해리. 그의 딸은 이제 15개월이었다. 2019년. 해리의 딸은 제네바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안다는 여자를 만난다. 그리고 사망한 아버지가 사실은 독립 기간 동안 알제리를 떠나야만 했던 명망 있는 유대인 의사 가문의 상속자였음을, 또한 치명적인 미모를 가진 한 여성이 아버지의 삶에 끼어들었음을 알게 된다. 딸은 마치 전설 같은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알게 되며, 어린 시절 갑자기 사망한 아버지에 대한 애도로 고통받던 기억을 떠올린다. 뛰어난 솜씨로 씌여진 자전적 소설.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4000부 판매

9782021454901 | 2020 | 208쪽
14X20,5 CM | 18.00 €

문학

막스 몬네

범죄심리학자 빅토르가 등장하는 고급스러운 심리 스릴러.

SOMB

SOMB

빅토르는 매일 수감자들이 자신의 가장 끔찍했던 범죄에 대해 떠드는 것을 듣지만, 직업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그를 옥죄고 있다. 어느 날, 빅토르가 사랑하는 연인이 그의 빌라 근처의 조약돌 해변에서 죽은 채 발견된다. 그녀의 얼굴은 산산조각이 난 채였다. 불길했다. 범인을 찾는 길은 요원했고, 자신의 삶에 대해 가졌던 그의 확신은 하나씩 무너져갔다. 군더더기 없이 고급스러운 심리 스릴러물.

9782021445961 | 2020 | 304쪽
14,5X22 CM | 18.50 €

Le Seuil

문학

티펜 사모요

침해할 수 없는 타자성의 문제와 번역의 폭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에세이.

TRADUCTION ET VIOLENCE

번역과 폭력

번역 소프트웨어의 발명은, '큰' 언어가 '작은' 언어를 지배하거나 깔아 뭉개버릴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오늘 날 번역은 실질적이고 인류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저자 티펜 사모요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할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 특히 깊이 측면에서 잃게 되는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한다.

9782021451788 | 2020 | 208 PAGEs
14X20,5 CM | 18.00 €

문학

이렌 프렝

침묵의 무게에 대한 성찰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내밀한 글쓰기.

UN CRIME SANS IMPOR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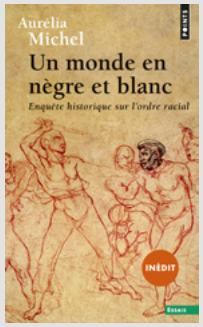
중요하지 않은 범죄

이렌 프랭이 언니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은 79세의 언니가 자신의 집에서 폭행치사를 당한 날로부터 이미 7주나 지난 뒤였다. 저자는 사건이 재조사되어 정의를 찾고 범인을 잡기를 염원하며, 밀도 높고 깔끔한 문체로 사랑하는 언니의 초상을 그려냈다. 또한 연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지닌, 그래서 의심을 멈추지 않았으며 모르는 채로 끝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저자 자신의 모습도 세심하게 그려져 있다.

9782021455885 | 2020 | 256쪽
14X20,5 CM | 18.00 €

쇠이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오렐리아 미셸

노예의 역사, 인종의 역사, 식민화의 역사를 담은 책.

UN MONDE EN NÈGRE ET BLANC :
ENQUÊTE HISTORIQUE SUR L'ORDRE RACIAL

흑백의 세계

인종 질서에 관한 역사적 탐사

이 책은 지중해 노예제에서 시작해 아프리카와 대서양에 이어 3대륙(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의 유럽 식민지화 과정으로 이어진 주요 단계를 되짚어봄으로써 인종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열쇠를 제공하고 그 경제적, 인류학적, 정치적 기반을 밝히는 방대한 탐사서이다. 또한 '니그로(흑인)'라는 단어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화이트(백인적)'의 의미를 설명한다.

푸앵 | 9782757880050 | 2020
400 PAGEs | 10,8X17,8 CM | 10.00 €

인문사회·에세이

알랭 슈납

인간 문명이 권력의 기념비 및 고대 유산에 대한 기억과 맺어온 관계에 대한 장대한 파노라마.

UNE HISTOIRE UNIVERSELLE DES RUINES :
DES ORIGINES AUX LUMIÈRES

유적의 보편적 역사

기원에서 계몽까지

유적은 기억과 망각, 자연과 문화의 균형 사이에서 끊임없이 복권되는 흔들리는 다리다. 이집트인들은 패권의 영광을 거대한 기념물에 담아냈다. 그리스와 켈트족과 스칸디나비아에서 기억의 수호자는 시인이나 음유 시인이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서양인들은 '기념물 숭배'를 만들어냈다. 르네상스는 고대 유산을 드높이고 시각화하는 체계적인 전략을 채택했다. 유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타인과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는 인류가 스스로 주장하는 진정한 인류란 없다.

9782021282504 | 2020 | 744쪽
23X30 CM | 49.00 €